

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은행과 거래 늘려야

한전·농어촌공사·aT 등 대부분 시중은행과 주거래

지역균형발전 취지 못살리고 자금 역외유출 불가피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나주 빛가람도시 입주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 중 상당수가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고 있어 대규모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이 지역은행과의 거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이 지점과 출장소를 내고 지역은행인 광주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기기관에 입점한 주거래은행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해당 공기업의 예산과 수익금을 운영,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직원 급여계좌, 신용카드 등의 부수거래를 취급할 수 있고 이미지 측면에서도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나주 혁신도시 최대 입주 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예산만 67조원으로 광주시 예산 3조6000억원의 18배에 이른다. 직원 1500명의 연봉 총액만 1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역시 내년에 투입해야 할 예산만 각각 2조9000억원과 1조2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아직까지 주거래은행으로 시중은행을 지정해둔 상태여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의 기본취지를 살리기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국전력 본사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유지한 상태로 우리은행을 추가 입점시켰다.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은 본점 2층에 지점 한 곳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T 등 농업관련 기관에는 농업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 지점을 개설했고, 한전KDN은 하나은행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한은행에 주거래은행을 맡겼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기관들이 종전처럼 시중은행들과만 지속적으로 거래한다면 막대한 예산 및 수익금이 전산망을 통해 곧바로 서울 본사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며 “사실상 지역에서 조성된 자본이 그대로 타지역에 유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한국전력 등 주요 입주기관들이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의 입점을 계기로 작은 거래부터 시작해 수신 및 예신, 퇴

직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도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이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 모두 입점한 것은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입금된 모든 자금을 곧바로 서울 본사로 올려 보내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지방은행은 조성된 자금을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민에게 바로 공급하게 된다”며 “혁신도시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지역은행 간 거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43.12 (+13.14)	▼ 금리 (국고채 3년) 2.16% (-0.02)
▲ 코스닥 536.78 (+1.27)	▼ 환율 (USD) 1096.20원 (-5.80)



효성, 연말 이웃사랑 10억 전달 장형욱 효성나눔봉사단장(오른쪽 두 번째)은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10억원의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 효성은 연말을 맞아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해 '사랑의 한할'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효성 제공>

현대·기아차 고성능차 총괄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 영입

현대·기아자동차가 BMW의 고성능차 개발총괄책임자인 알버트 비어만(Albert Biermann·57) 부사장을 영입한다.



비어만 부사장은 내년 4월 1일부터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는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고성능차 개발과 함께 주행 및 안전성과 내구성, 차량시스템 개발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비어만 부사장은 1983년 BMW그룹에 입사, 고성능차 주행성능, 서스펜션, 구동, 공조시스템 등 개발을 담당했으며 최근 7년간 BMW M 연구소장직을 담당해 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상술피해 예방 가두 캠페인

광주YWCA소비자상담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22일 전남대 후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수법의 상술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열고, 학생들에게 홍보리플릿과 핸드크림을 나눠주고 있다. <광주YWCA소비자상담실 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 내년 경영방침 ‘자강불식’

(自強不息)

끊임없는 자기 노력 통해 제2창업 선언

주력 계열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사실상 종료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5년 경영방침으로 ‘자강불식(自強不息)’을 정했다. 주역 견과편에 나오는 ‘자강불식’은 ‘오직 최선을 다해 힘쓰고 가다 들어 쉬지 아니하며 수양에 힘을 기울여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3일 “올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정상화를 앞두고 되면서 ‘제2창업’을 실질 달성한 만큼, 새 가치로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은 최근 계열사들의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2015년은

제2창업을 완성한 뒤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강하고, 힘있고, 멋있는 금호아시아나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과 계열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 2009년 유동성 위기에 빠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후 재무구조 개선으로 아

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5년 만에 자율협약에서 졸업했고 금호산업은 워크아웃 졸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채권단이 보유 지분을 매각한 이후 워크아웃을 끝내기로 했다.

광주와 곡성에 사업장이 있는 금호타이어 역시 사실상 워크아웃 졸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은 뒤 종료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권단 의견서를 최종 제출받아 24일 졸업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우선”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내년도 경제정책을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시장 개혁과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특히 구조개혁과 6대 중점 과제 중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 기요턴(단 두대)’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도소, 아동복지 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기간도 현재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200조 장기·고정금리 전환

성장률 전망치 0.2%포인트 낮춰 3.8%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정도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이들 대출 중 절반 이상이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이어서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은 2016년 말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 급여 체계와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꾼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정부는 최근 들어 심각해진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여신 전문사에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 외국인 채권

투자 과제 개편 등 ‘거시건전성 3중 세트’도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 인상 연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위반 시 징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는 체육교와 마스터교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 비교 공시, 공공요금에 유가 등 원가 하락 제 때 반영, 지방공공요금 공개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이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8%를 제시했다. 소비재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인상 효과(+0.6%포인트)를 포함해 2.0%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빌라 34평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 파크 빌라 3층 304호
- 2013년 준공, 5층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9천만원
- 매매 1억7천만원(일시불)
- 즉시 입주가, 내부 깨끗함

주인직매 H. 010-3180-8900

특수경매 배우면서 단독·공동 투자 하실 분!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움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010-3605-5000